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2, 383 - 402

##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김 유 정  
삼육대학교대학원 상담교육학과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 차원에서의 충동성이나 STAXI와 NAS로 측정된 분노 및 분노조절이 데이트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543명의 성인 남녀(남: 219, 여: 324)이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만 18세에서 59세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척락척도(CTS), 아이젠크성격검사(EPS), Spielberg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Novaco 분노척도이다. 분석 결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피해 경험만 있는 사람보다 가해와 피해 모두를 경험한 사람이 충동성 검사와 두 분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 모두를 경험한 사람들은 미경험자보다 STAXI의 특성 분노 수준이 높았고 분노도 더 많이 표출하고 있었다. NAS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 모두를 경험한 사람들은 미경험자보다 지나치게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행동 및 각성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분노의 인지 영역은 단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STAXI에서는 분노 표현이 NAS에서는 분노의 간접적 표현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의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STAXI와 NAS의 설명력이 비슷하였고, 데이트 폭력 피해는 NAS의 설명력이 STAXI보다 컸지만 그 차이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의 예방과 중재를 모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데이트 폭력, 충동성, 분노, 분노 표현, 분노 조절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Tel: 02-3399-1676, E-mail: khsuh@syu.ac.kr

2007년 초 신혼여행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파장에 이른 한 연예인이 결혼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연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 즉 데이트 폭력이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intimate violence)은 만성적일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부부 간에 행해지는 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은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98년 7월부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 중에서 데이트 폭력의 경우 서양에서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간혹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중앙일보, 2001년 9월 14일자), 데이트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TV의 여러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데이트 폭력을 다루어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성을 사귀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분노, 질투, 혼란을 정서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는데(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이런 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다(Levy, 1990).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데이트 폭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Levy, 1990), 한국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안귀여루, 2001). 한 연구(김정란, 1999)에서는 대학생 대상자들의 50% 이상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보고한 적도 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가정 폭력의 환경 하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 그 악순환이 계속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만성적이기도 하지만 폭력의 강도가 점차로 심해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미 연방 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0)은 살해당하는 여성의 1/3가량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해지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특별히 준비된 학교가 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연구도 수행되었다(Weisz & Black, 2001). 데이트 폭력에 대한 빠른 중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나 그보다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특성을 알아내어 그들의 폭력 성향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폭력범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거나 그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해 뿐 아니라 피해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는 피해 수준이 더 심각하고 주위로부터 정당한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서경현, 안귀여루, 2007; Witte, Schroeder, & Lohr, 2006). 이에 연구자들은 데이트 폭력의 순수 가해자와 순수 피해자,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검증되어 온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예언변인으로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목격이나 피해 경험, 가까운 관계에서의 호전성, 불쾌한 자극에 대한 민감성, 스트레스, 음주,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여부, 폭력의 이득에 대한 기대 등이다(Riggs & O'Leary, 1989). 그리고 이런 변인들을 데이트 폭력 피해와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혹은 음주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을 가해하거나 피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 분노 행동의 한 형태로 폭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가정하였다. Novaco(2007)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증명하였다. 분노가 청소년의 폭력, 특히 성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고(Cornell, Peterson, & Richards, 1999; Myers & Monaco, 2000),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특히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서경현, 2002; 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 1999; Silver, Field, Sanders, & Diego, 2000). Follingstad 등(199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상대를 조정하고 싶어 하고 분노 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데이트 폭력을 더 자주 행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수준이 높고 분노 통제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Dye & Eckhardt, 2000). 한편, Silver 등(2000)은 분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분노 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친밀감은 덜 느끼는데 반해 동성친구뿐 만 아니라 이성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데이트도 더 자주 하며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들이 특성분노 수준이 높아 분노표출이 심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서경현, 2008). 이런 연구결과들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

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서경현, 200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설명력이 크지 않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이경순, 2002)에서는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경험과 분노와의 관계를 더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설명하는데 Novaco 분노 척도(Novaco, 2003, The Novaco Anger Scale: NAS)가 적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Novaco는 1975년 Novaco 분노 설문지(Novaco Anger Inventory: NAI)를 개발하여 NAS로 개정된 후 분노와 폭력 간의 관계(Novaco, 1986, 1991, 1994)를 탐구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여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인지행동적으로 개입하는 방법(Chemtob, Novaco, Hamada, & Gross, 1997; Novaco, 1997; Novaco, 2007; Novaco, Ramm, & Black, 2000; Novaco & Welsh, 1989; Taylor & Novaco, 2005; Taylor, Novaco, Guinan, & Street, 2004)에 관해 연구해왔다. Novaco가 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노와 분노 표현의 하위변인들을 NAS에 채택하였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설명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행동적 개입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척도를 고안하였다.

Spielberger(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에서는 분노를 상태 분노(state anger)와 특성 분노(trait anger), 그리고 분노 표현을 분노 억제(anger-in), 분노 표출(anger-out), 분노 통

제(anger control)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NAS 척도(Novaco, 2003)는 폭력 경험자의 분노 조절문제와 관련된 하위척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AS 척도(Novaco, 2003)는 인지 영역, 행동 영역, 각성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은 강한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인 주의의 초점(attentional focus), 분노 자극에 계속해서 주위를 기울임으로 해서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고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인 반추(rumination), 언제라도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는 적대적 태도(hostile attitude),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변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위협으로 자각하는 특성인 지나친 의심(suspicion)으로 구성된다. 행동 영역(behavior domain)은 분노 자극에 대해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impulsive reaction),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으로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표현인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신체적 대항(physical confrontation), 수용될 수 있을 만한 대체물로 분노를 전환하여 표출하는 것으로 복수의 위험이 거의 없는 약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간접적 표현(indirect expression)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성 영역(arousal domain)에서는 분노의 강도(intensity), 분노의 지속 기간(duration), 화가 날 때 신체적으로 얼마나 긴장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적 긴장(somatic tension), 그리고 쉽게 기분이 상하는 정도인 과민성(irritability)을 측정한다. 이런 하위척도를 가진 NAS가 폭력이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것은 여러 다른

연구(Huss, Leak, & Davis, 1993; Jones, Thomas-Peter, Trout, 1999; Mills, Kroner, & Forth, 1998; Selby, 1984)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그런 연구들에서는 NAS가 폭력을 행하거나 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구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NAS의 하위척도들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분노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식을 더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척도로 측정된 분노나 분노 표현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해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선행 연구들(Arias & Johnson, 1989; Bookwala, Frieze, Smith, & Ryan, 1992; Henton, et al. 1983; O'Keefe, 1998)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해나 피해의 관련 변인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구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NAS의 행동 영역에 충동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격 차원에서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충동성은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Eysenck, 1977),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심응철, 1999). 그리고 몇몇의 선행연구(안귀여루, 2002; Lundeberg, Stith, Penn, & Ward, 2004)에서는 충동성이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과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충동성에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이 있는데 행동적 차원이 폭력과 더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White et al., 1994). 이런 주장은 충동적 사고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충동성보다 분노 혹은 분노조절이 폭력 가해나 피해와 더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최근 Novaco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Ham-Rowbottom, Jarvis, Gordon, & Novaco, 2005; Jarvis, Gordon, & Novaco, 2005),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변인으로 하여 그들의 분노 양상이나 분노 조절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노나 분노의 조절양상을 다각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NAS가 폭력 가해자의 분노조절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친밀한 관계에서 공격적 행동과 피해 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적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하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분노조절 문제에 인지행동적으로 개입하려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성격 차원에서의 충동성이 데이트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STAXI는 물론 NAS로 측정된 분노 및 분노조절 능력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외국어 학원의 수강생이거나 수강을 목적으로 내원한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650명으로부터 얻은 설문지 중에 이성과 사귀 경험 없다고 응답

한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는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543명(남성 219명, 여성 324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59세( $M=26.82$ ,  $SD=5.84$ )까지 분포되어 있다.

피검자들에게 설문지를 하기 전에 외국어 학원 관계자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대상자들이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지에 소비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으나 문항에 응답하기 전에 데이트 폭력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런 과정은 20명씩 나누어 이루어졌다.

아무리 약한 강도라도 한 번 이상 데이트 도중 상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했거나 상대방부터 신체적 공격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면 데이트 폭력 경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 경험자는 순수 가해자와 순수 피해자,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교차분석( $\chi^2$  검증)과 t검증, 변량분석, 적률상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이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에 의해 이루어졌다.

### 측정 도구

**갈등책략척도.** 서경현(2001)에 의해 번안된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데이트 폭력 피

해 경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과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없다', 2--'한 번', 3--'두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여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8, 데이트 폭력 피해가 .91이었다.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본 연구 목적에 따라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전경규,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에서 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는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한국 문화에 맞도록 표준화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 분노(10 문항)와 특성 분노(10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 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 억제(8 문항), 분노 표출(8 문항), 및 분노 통제(8 문항)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상태 분노는 척도의 문항에 응답하는 그 상태에서의 분노의 사고나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배제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 하위척도들(분노 억제, 분노 표출, 및 분노 통제)은 빈도로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전경구 등의 한국판 척도 개발에서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68과 .73으로 높았으나 분노 억제의 경우 .35로 낮았고, 각 하위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62~.89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79~.84를 나타냈다.

**Novaco 분노 척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Novaco 분노 척도(Novaco, 2003, The Novaco Anger Scale: NAS)는 남궁희승(1997)이 번안한 것을 교정하여 사용하였다. NAS 척도는 인지 영역, 행동 영역, 각성 영역으로 나뉜다. 인지 영역에서 주의의 초점(attentional focus), 반추(rumination), 적대적 태도(hostile attitude), 지나친 의심(suspicion), 행동 영역에서 충동 자극(impulsive reaction),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신체적 대항(physical confrontation), 간접적 표현(indirect expression), 그리고 각성 영역에서는 분노의 강도(intensity), 분노의 지속 기간(duration), 신체적 긴장(somatic tension), 과민성(irritability)을 측정하는데, 각 하위 척도에 4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Novaco(1994)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7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86이었고, 분노 관련 척도들과의 수렴타당도도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전체 척도가 .92, 인지 영역

은 .79, 행동 영역은 .82, 각성 영역도 .82였다.

**충동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현수(1997)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아이젠크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Scale)의 충동성 하위척도(Impulsive Questionnaire)도 사용하였다. 충동성 하위검사는 아이젠크성격검사의 3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14개의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는 버릇이 있고, 나중에 발뻠하고 싶은 일을 자주한다. 또한 그런 사람은 무계획적이고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 버린다. 이현수(1997)가 수행한 한국 표준화 과정에서 얻은 충동성 하위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도 .82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72였다.

## 결 과

### 데이트 폭력의 성차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성차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참고). 그 결과, 남성의 21.5%와 여성의 28.7%가 데이트 도중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chi^2(1, N=543)=3.58, n.s.$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에서도 남녀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19.1%가 데이트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성의 35.2%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보고하여 피해 경험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chi^2(1, N=543)=17.62, p<.001$ .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 수준도 더 많이 보고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541)=5.13, p<.001$ .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 조절 수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자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이 미경험자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데이트 폭력 경험 집단은 가해만 경험한 사람, 피해만 경험한 사람,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충동성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3, 539)=11.64, p<.001$ . 사후분석 결과, 가해 경험만 있는 사람과 가해와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충동성이 강했다. 이는 이런 충동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데이트 도중 갈등이 생겼을 때 충동적이고 도출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데 공헌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에 STAXI

척도의 하위척도, 즉 특성 분노와 세 가지 분노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데이트 가해 경험 여부에 따라서 특성 분노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539)=11.64, p<.001$ .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폭력 미경험자는 물론 가해만 혹은 피해만 경험한 사람들보다도 특성 분노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가해만 혹은 피해만 경험한 사람의 특성 분노는 미경험자보다 강하지 않았다. 분노 표현의 경우, 분노 억제와 분노 통제는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분노 표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 539)=10.34, p<.001$ .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는 물론 가해만 경험한 사람보다도 분노를 더 표출하고 있었다. 분노 표출이 데이트 도중 갈등 상황에서 서로 폭력을 행하고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한편,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NAS 척도의 많은 하위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행동 영역( $F(3, 539)=10.17, p<.001$ )과 각성 영역( $F(3, 539)=7.02,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노의 인지 영역에서는 적대적 태도와 지나친 의심이 데이트 폭력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

표 1.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의 성차

변인	성별	남성(n=219)			여성(n=324)		$\chi^2$	t
		경험유무	%	M(SD)	%	M(SD)		
데이트 폭력 가해	무경험		78.5	1.44(4.75)	71.3	1.28(3.46)	3.58	.46
	유경험		21.5		28.7			
데이트 폭력 피해	무경험		64.8	2.06(4.48)	80.9	.58(2.14)	17.62***	5.13***
	유경험		35.2		19.1			

\*\*\* $p<.001$ .

었다. 사후분석 결과,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미경험자보다 지나치게 의심하는 경향이 심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여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더 되어 있었다. 이는 또한 의심하는 것이 데이트 도중에 폭력을 가해하고 피해를 당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함께 경험하는 사

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분노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상대를 언어적으로 공격하고 신체적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함께 경험하는 사람은 미경험자보다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각성 수준도 높았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의 강도가 심했으며, 분노도 더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

표 2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에 따른 충동성, 분노 및 분노조절

변인	경험 없음 <sup>a</sup> (n=340)	가해경험만 <sup>b</sup> (n=64)	피해경험만 <sup>c</sup> (n=63)	모두 경험 <sup>d</sup> (n=76)	F	사후분석 (Scheffe)
	M(SD)	M(SD)	M(SD)	M(SD)		
<b>EPS</b>						
충동성	3.62(2.74)	4.89(3.06)	4.38(2.81)	5.54(3.10)	11.64***	a/b,d
<b>STAXI</b>						
특성 분노	18.07(4.38)	18.28(4.01)	18.46(4.34)	20.88(4.84)	8.53***	a,b,c/d
분노 억제	15.58(3.99)	15.23(4.07)	15.84(4.39)	16.90(4.07)	2.58	
분노 표출	13.53(3.55)	13.88(3.69)	14.43(3.99)	16.11(4.20)	10.34***	a,b/d
분노 통제	21.04(4.42)	20.44(4.86)	20.41(4.62)	20.06(4.48)	1.29	
<b>NAS</b>						
<b>인지 영역</b>						
주의의 초점	7.54(1.45)	7.94(1.56)	7.54(1.35)	7.80(1.50)	1.73	
반추	7.46(1.74)	7.60(1.99)	7.62(1.60)	7.71(1.62)	.58	
적대적 태도	6.36(1.56)	6.89(1.67)	6.57(1.50)	6.88(1.67)	3.69*	
지나친 의심	7.04(1.22)	7.39(1.23)	7.16(1.43)	7.62(1.36)	5.13**	a/d
<b>행동 영역</b>						
충동적 반응	6.08(1.52)	6.20(1.55)	6.40(1.78)	6.72(1.66)	3.81**	a/d
언어적 공격	6.78(1.44)	6.95(1.52)	7.10(1.61)	7.62(1.66)	7.64***	a/d
신체적 대항	6.09(1.42)	6.45(1.65)	6.70(1.62)	6.91(1.61)	8.09***	a/c,d
간접적 표현	5.54(1.23)	5.63(1.42)	5.76(1.42)	6.36(1.55)	8.34***	a,b/d
<b>각성 영역</b>						
분노의 강도	25.43(4.82)	25.86(4.49)	26.52(4.95)	28.18(5.07)	7.02***	a,b/d
분노의 지속 기간	6.10(1.41)	6.16(1.28)	6.86(1.58)	7.36(1.67)	4.80**	a,b/d
신체적 긴장	6.79(1.61)	7.09(1.77)	6.86(1.57)	7.36(1.67)	2.81*	a/d
과민성	5.98(1.53)	5.89(1.44)	6.52(1.78)	6.93(1.72)	9.25***	a,b/d
과민성	6.56(1.41)	6.72(1.39)	6.67(1.40)	7.17(1.50)	3.90**	a/d

\*p<.05, \*\*p<.01, \*\*\*p<.001.

고, 화가 났을 때 신체적 긴장 수준이 높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었다.

### 충동성, 분노 및 분노조절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충동성, 분노 및 분노조절과 데이트 폭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있는지를 남녀로 나누어 상관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STAXI 하위변인들과 NAS 하위변인들 간에는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NAS의 인지 영역 중에는 STAXI의 분노통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그랬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특히 인지적인 측면과 분노의 조절 혹은 통제와 상관이 있었다.

충동성은 남녀 공히 데이트 폭력 가해는 물론 피해와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STAXI 하위변인 중에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및 분노 표출도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분노 통제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런 관계는 남녀 모두에서 같은 양상을 보였다. NAS의 하위영역 중에 행동 영역과 각성 영역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인지 영역과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NAS의 인지 영역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는 남녀에게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여성과는 달리 남성의 경우에서만 데이트 폭력 피해가 인지 영역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19)=.23, p<.001$ . 상관분석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가 분노의 행동적 차원 및 각성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은 인지적 측면보다 충동적 행

동과 더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TAXI와 NAS의 분노 및 분노표현 혹은 분노 조절 하위변인들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면, 성별이나 충동성에 더해 어느 정도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지와 어떤 척도로 측정된 분노관련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일차로 성을 투입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성에 더해 충동성을 투입하여 분석한 후, 3차로 성과 충동성에 더해 STAXI 하위변인들을 투합하여 분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발견되었다. 분산팽창 계수(VIF)는 5.0에 미치지 않았으나, 성과 충동성을 포함하여 각각 STAXI 하위변인들과 NAS 하위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최대상태지수(CI.)가 24.31과 32.95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 충동성을 포함하고 STAXI 하위변인들과 NAS 하위변인들을 각각 나누어 투입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표 4 참고).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이 많은 예언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공변하여 준거변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남은 고유한 부분으로 준거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변인들은 제거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STAXI의 경우 분노 표출( $\beta=.33, p<.001$ )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가장 잘 예언하고 있었으며, 분노통제도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충동성도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16.5%가량 설명하였다. NAS의 경우 분노의 간접적 표현( $\beta=.22, p<.001$ )이 가장 유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과민성, 반추, 지나친 의심도 데이트 폭력 가해를 유의하게 예언하고 있었고 충동성을

포함해 그 변량을 약 16.6% 설명하였다. STAXI의 분노 표출은 데이트 폭력 피해도 가 장 잘 예언하고 있었다( $\beta=.28, p<.001$ ). 분노 통제 도 유의한 예언변인이었으며, 성과 충동성을 포함 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16.6%가량 설명 하였다. NAS의 경우, 간접적 표현( $\beta=.23, p<.001$ )

표 3. STAXI 하위변인, NAS 하위변인, 충동성 및 데이트 폭력 경험 간의 상관행렬

변인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충동성	폭력 가해	폭력 피해
<b>인지 영역</b>	.54*** .48***	.35*** .36***	.40*** .35***	-.02 -.19***	.28*** .31***	.14* .15**	.23*** .11
주의의 초점	.49*** .42***	.34*** .26***	.36*** .25***	-.01 -.11*	.27*** .25***	.10 .09	.16* .09
반추	.43*** .33***	.33*** .25***	.37*** .23***	.06 -.18**	.14* .19***	.05 .01	.16* .03
적대적 태도	.42*** .38***	.24*** .34***	.39*** .35***	-.15* -.24***	.26*** .35***	.12 .17**	.20** .08
지나친 의심	.33*** .34***	.18** .25***	.19** .23***	.03 -.03	.23*** .16**	.17* .22***	.21** .14*
<b>행동 영역</b>	.51*** .60***	.27*** .32***	.57*** .61***	-.28*** -.35***	.42*** .48***	.29*** .25***	.37*** .26***
충동적 반응	.47*** .64***	.20** .29***	.49*** .53***	-.33*** -.31***	.44*** .45***	.20** .13*	.22*** .17**
언어적 공격	.40*** .46***	.15* .19***	.45*** .48***	-.19** -.30***	.27*** .37***	.22*** .15**	.26*** .15**
신체적 대항	.40*** .45***	.20** .26***	.40*** .45***	-.17* -.24***	.25*** .35***	.20*** .23***	.25*** .24***
간접적 표현	.39*** .33***	.32*** .30***	.53*** .51***	-.22*** -.23***	.43*** .35***	.34*** .31***	.37*** .31***
<b>각성 영역</b>	.50*** .53***	.40*** .51***	.50*** .48***	-.24*** -.19***	.38*** .35***	.31*** .26***	.30*** .25***
분노의 강도	.46*** .55***	.23** .31***	.46*** .55***	-.29*** -.32***	.33*** .38***	.19** .25***	.20** .22***
분노의 지속 기간	.46*** .41***	.42*** .44***	.40*** .34***	-.18** -.12*	.30*** .23***	.18** .15**	.18*** .11*
신체적 긴장	.34*** .33***	.36*** .34***	.41*** .40***	-.16*** .30***	.32*** .26***	.35*** .19***	.33*** .25***
과민성	.42*** .38***	.32*** .46***	.39*** .34***	-.17* -.04	.32*** .24***	.31*** .24***	.28*** .21***
<b>충동성</b>	.33*** .51***	.20** .31***	.34*** .45***	-.20** -.30***		.30*** .22***	.27*** .22***
<b>데이트 폭력 가해</b>	.14* .29***	.32*** .21***	.38*** .36***	.02 .04			
<b>데이트 폭력 피해</b>	.26*** .25***	.27*** .23***	.34*** .34***	-.03 .02			

\* $p<.05$ , \*\* $p<.01$ , \*\*\* $p<.001$ .

주. 위는 남성( $n=219$ )의 상관계수이고, 아래는 여성( $n=324$ )의 상관계수이다.

과 신체적 긴장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고, 성과 충동성을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의 변량을 약 18.2% 설명하였다.

종합해 보면,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대해 STAXI의 분노표출과 NAS의 분노의 간접적 표현이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특성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거나 그것을 중재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성이나 충동성에 더해 추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설명력이 가해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고, 피해의 경우는 NAS가 STAXI보다 설명력이 컸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낮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25.8%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 경험을 보고하고 25.6%가 피해 경험을 보고하여 4명 중에 1명은 데이트 폭력 경

험이 있었는데, 이것은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중에 데이트 폭력은 그 기간이 다소 짧을지 모르지만 가정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데이트 중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고 신고하거나 중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다. 살해당하는 여성 중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에 비해 데이트 상대로부터 살해당했을 경우 피의자가 파악되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그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 살해는 아니라도 심각한 정도의 신체적 폭행이 이루어져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당사자들을 제외한 주변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을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 대상자들의 가해와 피해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지만, 남녀로 나누어보면 특이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가해했다는 남성보다 피

표 4.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성, 충동성, 분노 및 분노조절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N=543)

투입 변인	준거변인	데이트 폭력 가해			준거변인	데이트 폭력 피해		
		$\beta$	$R^2$	$\Delta R^2$		$\beta$	$R^2$	$\Delta R^2$
성 충동성 STAXI	분노 표출	.33***	.135	.135	분노 표출	.28***	.114	.114
	충동성	.15***	.148	.013	성	-.19***	.148	.034
	분노 통제	.14**	.165	.017	충동성	.13**	.159	.011
성 충동성 NAS	분노 통제	-.09*	.166	.007	분노 통제	-.09*	.166	.007
	간접적 표현	.22***	.107	.007	간접적 표현	.23***	.119	.119
	충동성	.14**	.126	.019	성	-.21***	.158	.039
	과민성	.16**	.139	.013	신체적 긴장	.13**	.174	.016
반추 자나친 의심	반추	.18***	.157	.018	충동성	.10*	.182	.008
	자나친 의심	.11*	.166	.009				

\* $p < .05$ , \*\* $p < .01$ , \*\*\* $p < .001$ .

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적었고, 가해했다는 여성보다 피해를 입었다는 남성이 많았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더니 데이트 폭력 피해를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대개 여성인 것이 현실인데 반해 (Levy, 1990), 데이트 폭력의 가해가 여성에서 더 많이 보고되거나 피해가 남성에서 더 많이 보고된 선행연구가 많다(서경현, 2004; 서경현, 김봉진 등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서양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는 않아서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있었지만(Henton et al., 1983, Stets & Henderson, 1991), 남성의 가해가 더 많고 여성의 피해가 더 많이 보고된 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처럼 데이트 도중에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 경우가 꽤 있었다 (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이런 현상을 데이트 도중에 발생하는 여성의 폭력 가해가 자기방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며(Molidor & Tolman, 1998), 폭력의 질로 설명하기도 한다(Archer, 2000; Hird, 2000). 폭력의 빈도가 폭력의 수준으로 계산되는 갈등척도척도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신체적 공격에 관해 묻는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에 성차가 있을 수도 있다(서경현, 2004). 하지만 현장에서 심각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대개 여성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경현, 2008).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이 충동적 성향이 강했다. 이는 일련의 선행연구(안귀여루,

2002; Lundeberg et al., 2004)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충동성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성관계에서 폭력으로 나타난 것이 인지적 차원의 충동성에 의한 것인지 행동적 차원의 충동성에 의한 것인지는 NAS의 하위변인으로 탐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충동성은 분노와 함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일 수도 있다 (Jackson, Neumann, & Vitacco, 200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어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Boyle, O'Leary, Rosenbaum, & Hassett-Walker, 2008)에서도 폭력을 행하는 남성들은 충동성이 강하고 행동억제 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에게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충동 성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데이트 폭력인 일반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서의 폭력과 차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종류의 폭력보다는 데이트 도중 공격적 행동을 하는 데에는 충동성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대에 대한 의심이나 집착 등과 같이 분노에 찬 행동을 하게 하는 인지적 요인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선행연구들(서경현, 2002; 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et al., 1999; Silver et al., 2000)처럼 본 연구에서도 분노는 데이트 폭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STAXI의 하위변인 모두가 데이트 폭력과 상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분노통제의 경우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나 폭력 수준과

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표현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분노 통제도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분노 표출이 가장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Follingstad 등(199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도중 상대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분노를 억제 못하는 성향이 폭력을 행하게 하고, Dye와 Eckhardt(2000)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들의 특성분노 수준이 높았으며, 그들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2002; 서경현, 이경순, 2002)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의 연구(2002),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서경현과 이경순의 연구(2002), 대학생도 많이 포함되었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분노 억제나 분노 통제가 특성분노나 분노표출보다 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척도의 신뢰도 문제일 수도 있다. 분노억제의 경우 한국판 STAXI 개발 연구(전경구 등, 1997)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내적일치도는 양호했지만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낮았다. 하지만 분노와 분노표현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를 15%가량 설명할 수 있고, 분노표출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언할 수 있는 매우 유의한 변인이라는 것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분노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도 특성분노 수준이 높았고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분노를 증가시켰을 수도 있지만, 갈등

상황에서의 분노표현이 상대의 신체적 공격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물론, 상대가 신체적 공격을 제외한 어떤 행동을 하였더라도 폭력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의 화를 자극하는 행동은 자신을 폭력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본 연구의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들이 STAXI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고, NAS의 분노의 인지 영역의 일부와 행동 영역과 각성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만 있는 사람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경현과 이경순의 연구(2002)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대학생들이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이 강했고 특성 분노와 분노 표출 수준도 높았는데 그런 결과를 재확증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폭력 피해를 유발하는 공격적 피해자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이들은 분노 조절을 못하고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서경현, 2008). 데이트 폭력 피해와 분노 혹은 분노조절 간의 인과관계 방향이 어떻게 간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해서는 분노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노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연구한 이전의 시도들(서경현, 2002; 서경현, 2008; 서경현, 이경순, 2002; Dye & Eckhardt, 2000; Follingstad et al., 1999; Silver et al., 2000)보다 본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는 분노의 인지 영역과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데이트 도중 상대의 행동이나 상대와 관련하여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극에 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세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의심을 가지는 것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계가 있었다. 이런 분노의 인지 영역은 단지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상관이 있었고, 남녀 모두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연인 혹은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의 폭력 가해와 상관이 있는 분노의 인지적 요인은 편집증 혹은 충동성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한 증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가 상대의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 등으로 인지적인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암시한다.

데이트 폭력 가해 중에 상대의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도 있을 수 있다는 논리는 데이트 폭력 피해가 충동적 반응, 언어적 공격, 신체적 대항, 간접적 표현과 같은 분노의 행동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결과로도 지지된다. 분노의 행동 영역 중에 신체적 대항이 데이트 폭력 피해와 상관이 있었다는 것도 또 다른 증거이다.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나 상대의 폭력에 동일한 수준의 폭력으로 대항한 사람의 경우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Witte et al., 2006),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아동후기나 청소년기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경우 그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Weisz & Black, 2001).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 상대에게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가를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

연령대에서 미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 행동이 분노의 행동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분노의 표출 행동 중에 간접적 표현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은 데이트 폭력을 중재하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NAS의 하위변인인 분노의 간접적 표현은 화가 났을 때 수용될 수 있을 만한 대체물로 전환하여 그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특히 복수의 위협이 거의 없는 약한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을 취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생긴 분노 감정을 대신 친밀한 관계에서 해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대감이나 분노의 감정을 데이트 도중 무고한 상대에게 표출하고 그것이 심하여 폭력으로까지 나타난 것이라는 결과는 처음 도출된 것이다. 또한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간접적으로 다른 대상인 데이트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은 그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도 얻었다. 물론 인과 방향을 역으로 해석하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받으면 데이트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튼 데이트 폭력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나 분노 자극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은 분노의 각성 영역과도 상관이 있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과민하고 신체적으로 긴장되어 있었으며, 피해 경험자들도 신체의 긴장 수준이 높았다. 과민성과 신체적 긴장은 분노의 강도와 지속기간과도 관계

가 있고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면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분노에 인지적 혹은 행동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이 분노의 각성 수준을 낮추기 위한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이완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후기나 청소년기에 갈등 상황에서 너무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STAXI와 비교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NAS 하위변인의 설명력이 기대했던 만큼 크지 않았다. 그러나 NAS가 폭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하위변인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분노를 인지적, 행동적 및 각성적 차원으로 구분한 것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각 차원의 하위변인 중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는 하위변인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AS의 경우 선행연구(Jones et al., 1999; Novaco, 1994)나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와 세 가지 분노 영역의 경우는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지만, 각 영역의 하위변인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이 척도가 Buss-Durke의 적대감 척도와 비교하여 구성타당도도 양호하고(Huss et al., 1993),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이나 폭력 전과자를 판별해 내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Selby, 1984; Unverzagt & Schill, 1989), 본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했다. 앞으로 이 척도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하면 추후 연구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분노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STAX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폭력을 더 잘 예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NAS의 하위변인으로도 데이트 폭력을 설명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인지행동적 전략을 세우는데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을 중재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희승 (1997). 분노조절 프로그램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 21-39.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77-96.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7, 353-369.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24-34.
-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679-695.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이현수 (1997). 아이젠크 성격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전검구, 한덕용, 이장호, Spielberg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 651-680.
-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Boyle, D. J., O'Leary, K. D., Rosenbaum A., & Hassett-Walker, C. (2008). Differentiating between generally and partner-only violent subgroups: Lifetime antisocial behavior,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impulsivi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47-55.
- Chemtob, C. H., Novaco, R. W., Hamada, R. S., & Gross, D. M. (1997).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for severe anger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184-189.
- Cornell, D. G., Peterson, C. S., & Richards, H. (1999). Anger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mong incarcerat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108-115.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Eysenck, H. J. (1977). *Crime and personality* (3rd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0).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9. *Uniform crime repor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Victims*, 14, 365-380.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Ham-Rowbottom, K. A., Jarvis, K. L., Gordon, E. E., & Novaco, R. W. (2005). Life constrai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omestic violence shelter gradu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 109-121.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 69-78.
- Huss, M. T., Leak, G. K. & Davis, S. F. (1993). A Validation Study of the Novaco Anger

- Inventory.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31, 279-281.
- Jackson, R. L., Neumann, C. S., & Vitacco, M. J. (2007). Impulsivity, anger, and psychopathy: The moderating effect of ethnic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 289-304.
- Jarvis, K. L., Gordon, E. E., & Novaco, R. W. (2005). Psychological distress of mothers and children in domestic violence emergency shelt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 389-402.
- Jones, J. P., Thomas-Peter, B. A., Trout, A. (1999). Normative data for the Novaco Anger Scale from a non-clinical sample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us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417-424.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Lundeborg, K., Stith, S. M., Penn, C. E., & Ward, D. B. (2004). A comparison of nonviolent, psychologically violent, and physically violent male college da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191-1200.
- Mills, J. F., Kroner, D. G., & Forth, A. E. (1998). Novaco Anger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in an adult criminal sample. *Assessment*, 5, 237-248.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Myers, W. C., & Monaco, L. (2000). Anger experience, styles of anger expression, sad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pathy in juvenile sexual homicide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 698-701.
- Novaco, R. W. (1975). *Anger Control: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xperimental treatmen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D.C. Heath.
- Novaco, R. W. (1986). Anger as a clinical and social problem. In R. Blanchard and C. Blanchard (Eds.), *Advances in the study of aggression*. Vol. II. New York: Academic Press.
- Novaco, R. W. (1991). Aggression on roadways. In R. Baenninger (Ed.), *Targets of violence and aggression*.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cations.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Steadman (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Developments in risk assess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vaco, R. W. (1997). Remediating anger and aggression with violent offender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2, 77-88.
- Novaco, R. W. (2007). Anger dysregulation. In T. Cavell & K. Malcolm (Eds.), *Anger, aggression, and interventions for interpersonal violence* (pp. 3-54). Mahwah, NJ: Erlbaum.
- Novaco, R. W. & Welsh, W. (1989). Anger disturbances: Cognitive mediation and clinical prescriptions. In K. Howells & C. Hollin (Eds.), *Clinical approaches to viol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Novaco, R. W., Ramm, M., & Black, L. (2000). Anger treatment with offenders. In C. Hollin (Ed.), *Handbook of offender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81-296). London: John Wiley and Sons.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Selby, M. J. (1984). Assessment of violence potential using measures of anger, hostility, and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531-544.
- Silver, M. E., Field, T. M., Sanders, C. E., & Diego, M. (2000). Angry adolescents who worry about becoming violent. *Adolescence, 35*, 663-669.
- Spie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aylor, J. L., & Novaco, R. W. (2005). *Anger treat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theory, evidence, and manual based approach*. London: John Wiley & Sons.
- Taylor, J. L., Novaco, R. W., Guinan, C., & Street, N. (2004). Development of an imaginal provocation test to evaluate treatment for anger problems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1*, 233-246.
- Unverzagt, F.W. & Schill, T. (1989). Anger assessment and its relation to self-report of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65*, 585-586.
-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2), 89-101.
- White, J. L., Moffitt, T. E., Caspi, A., Bartusch, D. J., Needles, D. J., & Stouthner-Loeber, (1994).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92-205.
- Witte, T. H., Schroeder, D. A., & Lohr J. M. (2006). Blame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 647-668.

원고접수일: 2009년 1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4월 27일

게재결정일: 2009년 5월 27일

# Impulsivity, Anger, and Anger Regulation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Yoo-Jeoung Kim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impulsivity as a personality trait, anger and anger regulation assessed by STAXI and NAS to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were 543 Korean adults (219 males and 324 females) who had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 whose ages ranged from 18 to 59.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Straus' Conflict Tactics Scale (CTS), Eysenck Personality Scale (EPS), Spielberger'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The Novaco Anger Scale (NAS). Results revealed that male subjects reported more frequently experience of receiving dating violence than female did. People with experience of both inflicting and receiving of dating violence showed higher anger scores as well as more stronger impulsivity than those who never experienced it and the only victims. They revealed higher trait anger and anger-out in STAXI than those who never experienced it. In NAS, although they were cognitively more suspicious than others, there were remarkable differences on behavior and arousal domai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domain of anger and male's inflicting dating violence only. Anger-out in STAXI and indirect anger expression in NAS accounted for the most variance of inflicting and receiving dating violence. STAXI and NAS accounted for almost same level of the variance of inflicting dating violence, and NAS accounted little more for the variance of receiving it. The present findings suggest the useful information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Keywords:* dating violence, impulsivity, anger, anger expression, anger regulation